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오바다서**

시온에서 구원

(오바다 1 : 15~21)

원로목사 **이종윤**

역전이란 운동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도 있습니다. 젊어서는 갖은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승승장구하며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일은 아무것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에도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에서에 쫓겨 외삼촌 집에 가서 20여년이 넘도록 고생을 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온 야곱은 조국에 흥년이 들어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갔다가 그 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반면 에서는 고향에서 많은 양떼와 가축을 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후손은 매우 불행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렸고(창 37:1), 에서의 후손은 성읍들에 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라가 황폐케 되었습니다(겔35장).

오바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에돔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며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바다의 예언에 의하면 에돔은 흠어지고, 이스라엘은 흠어지나 다시 모일 것입니다. 이것은 지리적 안전을 구가하고 동맹군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하며 형제를 천대하고 형제에게 잔인했던 에돔의 교만죄 때문이었습니다.

1. 만국을 벌하는 날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15절).

여호와와 날에는 에돔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벌을 받게 됩니다.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과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와 베냐민의 길르앗, 그리고 사르밧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19절).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이나 지역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임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가까운 날

2천 5백 여 년 전에 이미 선지자들은 여호와와 날이 가까웠다고 했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2-3)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도 2천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 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가깝다’는 말은 여호와와 날이 더디 온다고 해도 에돔에게는 연기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에게 즉시, 혹은 갑자기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회개하며 여호와와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가 행한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15절).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남을 판단한 그것입니다. 남에게 관용을 많이 베푼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관용의 잣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신나서 바라보던 에돔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16절).

죄악의 잔을 마신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시며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천대하고 억울하게 한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것이어서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3. 축복의 날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17절).

시온 산은 교회, 거룩한 백성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로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야곱 족속이 불이 된다는 것은 심판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에서 족속은 불에 타는 지푸라기가 될 것을 말합니다(18절).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은 모두 불태워질 것이고 그들에게서 세상적인 것들이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와 날은 원수는 망하고 이스라엘은 회복을 하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구원 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21절).

우리의 모든 삶은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온 산에서 구원이 오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고 에돔은 힘 있는 국가로 번영을 누리는 것 같았으나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3:9).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은 갑자기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온 산을 떠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목사 연임청원 전원 통과

9월 6일(수) 회집된 우리교회 정기당회에서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목사 연임청원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하였다. 또한 지난 주 오광환 장로 기사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정정 : 안식년 중인 오광환 장로를 교회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9월 6일(수) 회집된 우리교회 정기당회에서 조기복귀허락청원과 재시무투표를 만장일치 통과하였다.

교육위원회 21개부서 가을맞이 대청소

9월 23일(토) 오전 12시 식사후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계홍 장로)는 교회의 분란으로 1년동안 방치되어 있는 예배·행사·교육 물품의 정리를 위해 대청소를 실시한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른 부서에서도 교회 대청소에 동참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 시간 : 9월 23일(토) 12시 8층 식사후
- 장소 : 21개 교육부서 및 관련 부서
- 방법 : 1. 폐기물품 처리 2. 사용물품 정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서기 김혜언 집사 (010-3923-9913)에게 문의 바란다.

공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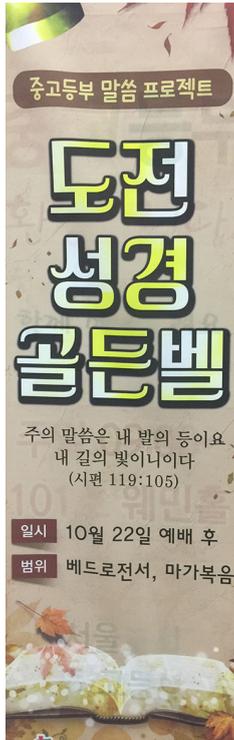
2017년 9월 14일 문서번호 예정종재 제101-527호 총회재판국 판결 통보에 의거 오늘부터 주보와 순례자에 박노철 목사의 이름이 삭제 된다.

유·초등부 가을 성경학교

10월 22일(주) 오전 11시~오후 4시

유초등부에서는 10월달에 가을성경학교를 10월 22일 (주) 오전 11시 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한다.

그동안 짧아진 유초등부 시간으로 인해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많은 제약들이 있었다. 이에, 10월 22일 하루 시간을 잡아서 즐겁고 재미있고 서로 교체하며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말씀 프로젝트

10월 22일(주)

중고등부에서는 학생들의 신앙과 성경 지식 향상을 위해 말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도전 성경 골든벨』을 개최한다. 10월 22일 (주) 중고등부 예배 후에 열리며 범위는 베드로전서, 마가복음이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7 성경 암송대회

범위: 베드로전서 1~5장

본선: 10월 13일(금) 오후 7시

2017년도 성경암송 본선은 베드로전서 1-5장이자. 예선은 10월 1일(주일)에, 본선은 10월 13일(금) 오후 7시에 시행한다. 교육1국에 한하여 미취학부서는 베드로전서 1장을, 취학부서는 베드로전서 1-3장을 암송한다. 암송 본문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하고, 영어번역본은 NIV(1984년 개정판) 성경으로 한다.

한편 성경암송대회 전까지 수요일예배 설교를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부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있다.



예수의 비유

좁은 문

(눅 13:22-30)

원로목사 이종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리임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도 없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새롭고 산길을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순간에 인간 세상과 지성소 사이에 가로 놓였던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다 말씀이다. 이것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들어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세 가지 종류의 인간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라고 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도덕주의자들에 대한 도전이다. 도덕주의자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고 완전해

지면 혹시 구원을 얻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때때로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허무맹랑한 말이다. 또 깨닫는 자도 없다는 말은 이성주의자들과 논리주의자들에 대한 도전이다.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깨닫고 터득한 진리를 가지고 마치 신을 찾은양 떠돌고 다니지만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종교인들에 대한 도전이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덕주의자들, 논리주의자들, 종교가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끝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겠거니와 그 가까이 갈 수도 없다.

구약성경은 말씀하기를 이것은 우리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내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담이 세워졌고 그 담을 넘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이다. 영원히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소멸하시고 죄를 옮겨 놓으신 것이다.

문제는 누가 그 사실을 믿느냐 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만나기가 이토록 어려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가?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길을 터주시고 하늘가는 밝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 자신이 문이 되어 주셨는데 그 문을 믿지 못하기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루는 일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결 론

구원에 이르는 문이 좁다고 한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불 뱀에 물려서 죽게 된 일이 있었다. 그때 하나님은 구리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쳐다보게 했는데 그것을 쳐다보지 않아서 죽게 되었다. 장대에 달린 구리 뱀을 한 번 쳐다보면 될 텐데 "그것을 쳐다본다고 나올까?"하는 불신감으로 결국 죽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마음이다. 예수를 믿으면 살고, 천당 간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믿으라고 하면 더 믿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향한 문은 좁은 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문이다. 또 그 길을 따라가면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찾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천국에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 일일수련회 함박스테이크 도시락을 준비하며 행복해 하는 성도들...
(자세한 진행 사항은 다음 주 순례자에 게재한다.)

총회 재판국 결정문

박노철 목사 청빙 무효 :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임직도 무효, 위임목사 지위는 부존재 15장으로 공동의회 무효
박노철 목사가 고소한 안식년규정은 유효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행정지원본부 03128 서울시 용무구 내곡로3길 29, 309호(안정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550(내선211) 전속: 02)6008-2982 담당: 홍준애 실장

문서번호: 예장총재 제101-527호
시행일: 2017. 9. 14
수신: 노문환 장로
참조:
제목: 판결 통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본 재판국은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3인이 서울강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박노철 목사 청빙허락 결의 무효 확인소송 건)"(사건번호: 제101-073호)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3편(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4조(판결의 확정) 제35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제36조(재판송달의 기일)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판결 통보합니다.

첨부: 총회 재판국 판결문. 1권

재판국
국장 김진수
서기 김수

주 문

1.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가 2011년 11월 8일 제49회 정기회에서(당시 노회장 김학현 목사)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한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허락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제3차 소송참가인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임직은 무효이고 그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 중 략 -

5. 결론
그렇다면 박노철 목사의 목사고시 합격은 무효이고 헌법상 필요한 타교단 목사의 청빙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청빙을 받은 것이므로 2011.11.8.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 제49회 정기회에서 이루어진 박노철 목사에 대한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허락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나아가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임직 또한 무효로서 그 위임목사의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 권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위와 같이 판결한다.
2017년 9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행정지원본부 03128 서울시 용무구 내곡로3길 29, 309호(안정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550(내선211) 전속: 02)6008-2982 담당: 홍준애 실장

문서번호: 예장총재 제101-528호
시행일: 2017. 9. 14
수신: 노문환 장로
참조:
제목: 판결 통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본 재판국은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최치순 장로가 서울교회 당회장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확인의 소)"(사건번호: 제101-263호)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3편(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4조(판결의 확정) 제35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제36조(재판송달의 기일)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판결 통보합니다.

첨부: 총회 재판국 판결문. 1권

재판국
국장 김진수
서기 김수

주 문

1. 원고(상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 중 략 -

6. 결론
따라서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과 무관하게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인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의 판결 또한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바, 이를 다투는 상고인(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또한 위 안식년규정은 총회헌법과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그리고 총회임원회의 시행권고에 따라 개정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박노철 목사는 그에 따라 안식년을 시행하고 재시무표절차를 통하여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원심인 서울강남노회재판국의 판결이유 중 이와 배치되는 부분은 이와 같이 변경한다.)

위와 같이 판결한다.
2017년 9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문서번호 예장총재 제 101-527호)

판결 통보

본 재판국은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3인이 서울강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박노철 목사 청빙허락 결의 무효 확인소송 건)"(사건번호: 제 101-07호)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3편(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4조(판결의 확정) 제35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제36조(재판송달의 기일)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판결 통보 합니다.

주 문

1.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가 2011년 11월 8일 제49기 정기회에서(당시 노회장 김학현 목사)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한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허락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제 3차 소송참가인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임직은 무효이고 그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 론

그렇다면 박노철 목사의 목사고시 합격은 무효이고 헌법상 필요한 타교단 목사의 청빙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청빙을 받은 것이므로 2011. 11. 8.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 제 49회 정기회에서 이루어진 박노철 목사에 대한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허락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나아가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임직 또한 무효로서 그 위임목사의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 권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문서번호 예장총재 제101-528호)

판결 통보

본 재판국은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최치순 장로가 서울교회 당회장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확인의 소)"(사건번호: 제101-26호)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3편(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4조(판결의 확정) 제35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제36조(재판송달의 기일)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판결 통보합니다.

주 문

1. 원고(상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 론

따라서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과 무관하게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인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의 판결 또한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바, 이를 다투는 상고인(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또한 위 안식년규정은 총회헌법과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그리고 총회임원회의 시행권고에 따라 개정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박노철 목사는 그에 따라 안식년을 시행하고 재시무표절차를 통하여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원심인 서울강남노회재판국의 판결이유 중 이와 배치되는 부분은 이와 같이 변경한다.)

의 소송”(사건번호 : 제101-53호)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 3편(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4조(판결의 확정) 제35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제36조(재판송달의 기일)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판결 통보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제1회로교회 주재 "다시 개혁신교로회복"을 위한 13개회의 1회 2주

행정지원본부
09178 서울시 용문구 대문로길 29, 309호(관동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550(내선11) 팩스 02-6208-2982 555 - 홈페이지 운영

문서번호 : 예정종재 제101-529호
시행일 : 2017. 9. 14
수신 : 서문서장님
장소 : 판결 통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본 재판국은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20인이 서울강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로선거청원 허락결의 및 공동의회소집지시 행정행위 무효확인 등 제101-53호)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34조(판결의 확정) 제35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제36조(재판송달의 기일)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판결 통보합니다.

첨부 : 총회 재판국 판결문 1부

재판국
국장 김진욱
서기 김수현

주 문

1.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가 2017년 4월 4일 묘동교회에서 개최된 제60회 정기노회(노회장 피고 김예식 목사)에서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가 제출한 서울교회 장로증원 청원을 허락한 결의 및 서울강남노회장 김예식 목사가 2017년 4월 14일 서울교회에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한 행위는 각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 종 략 -

6. 결론
결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가 2017.4.4. 제60회 정기노회에서 서울교회 장로증원 청원에 대하여 한 허락결의 및 피고가 2017.4.14. 서울교회에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한 행위는 모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그렇다면 헌법 권징 제164조 제1항,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견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판결한다.
2017년 9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문서번호 예정종재 제101-529호)

판결통보

본 재판국은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20인이 서울강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로선거청원 허락결의 및 공동의회소집지시 행정행위 무효확인 등

주 문

1.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가 2017년 4월 4일 묘동교회에서 개최된 제60회 정기노회(노회장 피고 김예식 목사)에서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가 제출한 서울교회 장로증원 청원을 허락한 결의 및 서울강남노회장 김예식 목사가 2017년 4월 14일 서울교회에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한 행위는 각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 론

결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가 2017.4.4. 제 60회 정기노회에서 서울교회 장로증원 청원에 대하여 한 허락결의 및 피고가 2017.4.14. 서울교회에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한 행위는 모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그렇다면 헌법 권징 제164조 제1항, 제152조 제2항을 따라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견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살자

정동호 집사 (미국 버지니아주)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두신다고 합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쳐다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을 끊임 없이 이끕니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미에 꼭 맞게 하기도 하고, 디자인이 허접하면 손도 잘 안 가듯이 화려하게 꾸미기도 하고, 아무리 내용이 충실하여도 포장이나 겉이 그럴듯하지 않으면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보는 것과 보이는 것에 집중하도록, 세상은 그러한 것에 더욱 더 집착과 관심을 두게 하지

만,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 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피할 바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멸망이 되어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들의 눈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눈을 똑똑히 바라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여야 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나의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을 바라 보겠습니다."라고 말씀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이 매일 새로워지고 회복 되어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9월 22일(금) WRF(세계개혁주의협의회)국제총무 Flip Buy박사(남아공)의 예방을 받고, 10월에 있을 Wittenberg에서 열리는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국제회의를 협의한다.

■ 금주의 식사 : 김광욱 집사 서영희 권사 김광민 집사 박민숙 집사 가정 (모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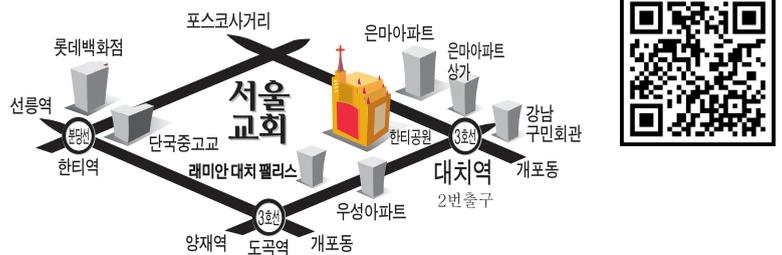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우리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2.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3.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지게 하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짧은이 예 배	오후 2시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본 당 II 층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교회 오시는 길



서울교회QR코드

